■ 李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의미와 과제

北핵 공조·동북아 평화 구축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업-그레이드…경제·통상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 발전, 경제·통상분야 협력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못지 않게 중국이 중요하다는 점도 이번 방중의 의미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양국 간 관계 격상**=이 대통령은 우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계는 지난 98년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와 2000년 '전면적 협력관계' 합의를 거치면서 정치, 군사, 문화, 지역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돼 왔으나 전략적 단계로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의 전면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설정하고 비전략적 관계에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하에서는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중·일 3국간, 더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북 핵 폐기 공조**=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공고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지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방중을 끝으로 북핵문제에 가장 중요한 미·중·일 3강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겠다는 '비핵·개방·3천 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통상협력 공고화**=정치·외교 사안 못지 않게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 기반을 다지는 것도 이번 방중의 주요 현안이다.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 잠재력이 큰데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가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與, FTA 처리 막판 전력

한, "17대 국회서 통과시켜 달라" 호소

정부와 여당은 26일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한미FTA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 정치권을 대상으로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모드를 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7대 국회 임기 종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17대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FTA 비준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새로운 추가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주로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한미 양국의 정치권 동향 등을 집중 점검하고 35분 만에 종료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FTA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 끝내준 과제이고 또 이를 완성하는 것이 정권을 초월한 과제"라며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정치권 동향과 관련, 대선 뿐만 아니라 상·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8월까지 미 의회에서 FTA가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이날 국익과 FTA 비준 이후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며 대국민 직접 설득과 함께 대야 압박을 병행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재소집을 요구한 첫날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불응하고 동의안을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거래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은 기필코 해야 하며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미 FTA 비판' 서한과 관련, "이는 결국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다는 반증"이란 해석들이 쏟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YS와 다시 '소통'

4개월여만에 靑서 단독 회동…총선 뒤 '오해' 풀어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지난 24일 저녁 청와대에서 단독 만찬회동을 갖고 4·9 총선때 한나라당 공천 이후 쌓인 오해를 해소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대통령의 팔순 잔치에 참석한 이후 4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청와대측은 김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계인 김덕룡 김무성 의원과 박종웅 전 의원이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에게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김기수 비서실장은 26일 "2시간 30분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들었다"면서 "정치하는 고단수들께서 만나셨으니 현안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두분만 배석하셨기 때문에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분위기는 화기 애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FTA 발언 정치적 의도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한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과 관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에 결함이 있다는 오바마 의원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이제 대선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바마 의원은 23일(미국 시간) 조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주 결함이 있는 FTA인 만큼 비준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FTA 관련 행사를 한 데 이어 미 업계도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하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어 오바마 의원이 이런 서한을 보낸 것 같다"고 설명하고 "특히 미국 자동차 노조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DJ, 6·15 8주년 행사에 李대통령 초청

사단법인 김대중 평화센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2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였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과 6·15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위원장을 맡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초청의 말씀'을 통해 "이번 행사는 새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고 6자 회담의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쇠고기 '전면투쟁' 결의

고시 강행 땐 '장외투쟁'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28~30일께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26일 '한미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8대 국회 당선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당선자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장관 고시 강행기도 즉각 중단 ▲평화적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경진압 중단 및 책임자 문책, 불법 연행자 전원 석방 ▲쇠고기 협상 책임자 문책 및 전면적 국정쇄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당선자들은 성명서에서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당력을 모아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투쟁 불사 방침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쇠고기 재협상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저녁 최 정책위의장 등 당선자 6명을 촛불집회 연행자들이 구금돼 있는 수서경찰서에 보내 '구속 반대 및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장관 고시를 앞두고 26일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위헌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한승수 총리를 항의 방문, 고시 연기를 촉구하고 장외투쟁도 검토하는 등 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제1야당이 뚜렷한 대안없이 장외로 뛰쳐나간다는 점은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장외투쟁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장외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쇠고기 재협상-원구성 협상 연계 전략을 적절히 병행,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3당, 쇠고기 재협상 공동대응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왼쪽부터) 등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며 공동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강의!
곽내영교육학
강좌개설 교육학·곽내영 / 초등교육·위재권 / 유아교육·임미선 / 전공국어·최병해 / 국어교육론·마운용 / 전공수학·임대성 / 전공생물·강치욱 / 전공물리·장영민 / 전공미술·김성희 / 전공체육·김용호 / 일반사회·김형수 ※ 처음 시작에서 합격까지 - 무료상담 「매주 (화,금)11시, 3시, 7시」
곽내영고시학원 http://www.naeyoung.com
대표전화 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여름방학 특강! 현재 상담 접수중 개강 7월 4일
언제 어디서나 만난다! 곽내영교육학 인터넷동영상 에듀뷰넷 www.eduview.net 02)816-1646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다면!
365일 국비 지원 고용 환급 교육!! 가장 쉽고 빠른 자격증, 공무원 100% 합격 준비! 난 집에서 편하게 한다.
주소창에 www.sein.co.kr 를 쳐보세요.
① 온라인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세인에듀"/www.sein.co.kr
국가/민간 자격증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무원고시 → 7·9급 공무원, 10급 기능직, 기술직, 소방공무원
IT/직무재교육 → Internet/Network, Graphic/Design, Programing, OA/사무
② 경찰채용, 승진 포털 아카데미 "세인폴리스"/www.seinpolice.co.kr
경찰 공무원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 종합반, 단과반, 특강, 패키지반
③ 온라인 고용환급 전문 교육 "세인LMS"/www.seinlms.co.kr
자격증 교육 →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품질경영기사 등
경영, 직무 교육 → 마케팅전략 실무, 고객만족과정, 산업안전이론, 전기, 전자제어 등
정보기술 교육 → 오피스활용, 재무회계, 컴퓨터그래픽 등
④ 전기·소방 전문 교육 "세인나라"/www.seinnara.co.kr
전기 자격증 → 김경일평상 직강,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 실기
소방 자격증 → 소방설비전기기사 /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필기, 실기 강의
대한민국 No.1 온라인 평생교육 세인에듀
SEINEDU 사이버 국가자격 평생 교육원 ☎02)3144-0075~8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초 주·야 (첫진도 시작반)
합격강좌 5~6월:기본서이론(기본이론부터 심화학습강화) 7~8월:핵심기본이론 및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 9~10월:최종정리 및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좌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바람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月27日, 경기56명 8月2日, 서울29명 (열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전남:제1회 공·경 9月27日 209명 ◎경기:제2회 635, 전북119명 공채 ◎서울:교행6월말, 일행 7.20. 1,133명, 기타 8.17. 656명
개강 6월2일 (주·야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준)회원 80만원 ◎1년 (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십시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